

민주노총 대전본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 결의대회 진행

✎ 정순영 기자 | © 승인 2021.06.19 17:55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자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까지 344명의 산재사망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재사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을 다시 한번 요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대전본부를 포함한 전국 7개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및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김정태 지부장의 결의발언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발언을 마친 후 7대의 방송차와 약 50여명의 조합원들이 둔산동 타임월드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타임월드 정문까지 행진을 마친 후 약 40분동안 투쟁사 및 문예공연을 진행했으며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윤희 본부장의 회사를 마무리로 합동추모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1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전분부는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및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및 각 산별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



민주노총 대전본부 및 각 산별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대전고용노동청 앞을 지나가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강진 통일위원장 등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대전교육청앞 사거리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울현 본부장 등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타임월드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문예공연을 하고 있는 몸짓패 '해방'



문예공연을 하고 있는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늘'



발언하고 있는 -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 전병덕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대전세종건설지부 김명환 지부장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울현 본부장



정순영 기자 soonyoung.labor@gmail.com